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프로젝트

결제가 기본소득이 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 예산 없이 복지를 실현하는 핀테크의 게임 체인저 -



- 대한페이 -

목 차

PART I. 본문 (Main Text)

1. 문제 인식 — AI가 불러올 대실업, 그리고 지불되는 30조 원	03
1.1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	03
1.2 AI는 어떤 일자리를 바꾸고 있는가	03
1.3 문제의 본질 —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든다	03
1.4 또 하나의 문제 — 매년 약 30조 원이 지불된다	04
2. 아이디어 핵심 내용 — 지불되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되살리다	04
2.1 수수료를 없애지 않는다, 방향을 바꾼다	04
2.2 3대 디지털 자산, 각자의 역할	05
2.3 기존 지역화폐와의 구조적 차이	05
2.4 자생적 선순환 및 탄력적 자산 운용	06
2.5 민국코인 및 지역토큰 발행 동기와 가치 환원 철학	06
2.6 지역토큰 기반 기본소득 모델	06
3. 해결 방안 — 기술과 설계로 구조를 바꾸다	07
3.1 결제 구조의 재설계 — 하이브리드 결제	08
3.2 상생기금 메커니즘 — 주식의 자사주 소각 개념 도입	08
3.3 더블 리워드 시스템 — 결제 한 번에 3가지 토큰으로 보상	08
3.4 소비자 중심의 자동 기부 프로세스	09
3.5 규모 시뮬레이션 — 시장 점유율이 만드는 변화	09
3.6 선순환 구조의 완성	10
4. 독창성 및 차별화 — 세상에 없던 혁신	10
4.1 방향의 전환 — 지불을 순환으로	10
4.2 자생성 — 예산 없이 무한 확장	10
4.3 AI의 역설적 해법	11
5. 기대 효과 — 소비가 기본소득이 되는 시대	11
5.1 소비자	11
5.2 판매점 (소상공인)	11
5.3 지자체 228곳	11
6. 금융 혁신 및 제도권 안착 전략	11
6.1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추진	11
6.2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12
7. 글로벌 서비스 확장 계획	12
7.1 비공식 무역 대금의 현황 및 비중	12
7.2 비용 및 네트워크 수수료 발생	12
7.3 대한페이의 글로벌 혁신 모델 — '상생'과 '자산화'	12
8. 결론 — 상생과 혁신이 공존하는, 소비가 기본소득이 되는 시대	13
9. 면책 조항	14

대한페이 (DaehanPay) 결제가 기본소득이 되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

- 예산 없이 복지를 실현하는 핀테크의 게임 체인저 -

1. 문제 인식 — AI가 불러올 대실업, 그리고 지불되는 30조 원

1.1. 조용한 혁명이 시작됐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현실이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2024년, 미국의 한 대형 회계법인은 신입 직원 채용을 중단했다. 이유는 단 하나,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한 물류 기업은 AI 기반 자율주행 트럭을 도입하며 배송 기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기존의 생성형 AI가 정보 전달에 그쳤다면, 에이전틱 AI(Agentic AI)는 이제 사용자를 대신해 비행 기표 예약, 신용카드 결제, 보고서 작성 등 실제 업무를 '실행'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당초 2030년으로 예상되었던 에이전틱 AI의 현실화 시점은 기술 발전 속도로 인해 2027년경으로 크게 앞당겨지고 있다.

1.2. AI는 어떤 일자리를 바꾸고 있는가

첫째는 화이트칼라의 위기다. AI는 단순 반복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세금 신고, 재무 분석, 법률 문서 검토, 고객 응대, 데이터 입력 등 지식 기반 사무직까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사무직 일자리의 최대 30%가 자동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는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택시 기사, 버스 기사, 화물 운전기사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는 2030년 전후, 이 중 상당수가 일자리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된다. 자율주행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물류비용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그 혜택이 일자리를 잃은 운전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셋째는 제조업 현장의 변화다. 테슬라 옵티머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삼성 로봇 등 인간형 로봇이 이미 공장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자동차 조립, 전자 부품 제조, 물류 창고 작업 등 한국 제조업의 핵심 일자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2035년까지 제조업 단순·반복 직무의 대다수가 로봇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 문제의 본질 — 생산성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줄어든다

AI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내는 생산성 향상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된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AI로 인한 대량 실직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2028년경에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경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기업도 AI가 생산성을 높여도 물건을 살 소비자가 사라지면 기업 역시 생존 위기에 처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진다.

이에 세계 각국은 새로운 분배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가 현금 대신 의식주·OTT 구독권·AI 사용권 등 필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UBS(Universal Basic Services) 모델, 샘 올트먼이 제안한 GPU 소유권·토큰 배분 방식, 18세 성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UBE(Universal Basic Equity) 모델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모든 방식에는 공통된 한계가 있다.

"재원이 없다."

정부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수백조 원이 필요하고,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증세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낳는다.

1.4. 또 하나의 문제 — 매년 약 30조 원이 지불된다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와 동시에, 우리는 매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구조적 손실을 방치하고 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샀다. 소비자는 4,500원을 냈지만, 카페 사장님이 실제로 받는 돈은 4,400원이다. 나머지 100원은 카드사와 PG사(결제대행사)의 수수료로 지불된다. 하루 200잔이면 매일 2만 원, 1년이면 730만 원이 수수료로 지불된다.

- **대한민국** : 연간 수수료 약 30조 원 (전체 결제액 약 1,360조 원 중 2.2%)
- **글로벌** : 연간 수수료 약 1,819조 원 (\$1.25T) (전체 결제액 약 52조 달러 중 2.4%)

이것이 전국 수백만 개 판매점에서 매일 반복된다. 대한민국 전체로 합산하면 연간 약 30조 원이다. 전체 결제액 1,360조 원의 2.2%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수십 년간 '당연한 비용'으로 여겨져 왔다. 전 세계로는 약 1,819조 원(\$1.25T)이다.

그럼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해본다. 이미 매일 흘러가고 있는 돈의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2. 아이디어 핵심 내용 — 지불되는 돈을 기본소득으로 되살리다

2.1. 수수료를 없애지 않는다. 방향을 바꾼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지불하던 약 2% 수수료는 판매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지불성 비용'이었다. 대한페이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민국코인'과 '지역토큰'이라는 가치 환류형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판매점은 결제 대금의 100% 가치를 온전히 보존 받는 '실질 수수료 0원'의 혁신을 경험하게 된다.

- **[기존 결제 : 수수료 약 2% 지불]**

소비자 결제 (100%)	→	수수료 (2%)	→	판매점 (98%) 정산
---------------	---	----------	---	--------------

- **[대한페이 결제 : 수수료 0% 보존]**

소비자 결제 (100%)	→	대한페이 (원화) 98% 민국코인 (상생) 1% 지역토큰 (복지) 1%	→	판매점 (100%) 가치보존
---------------	---	---	---	-----------------

2.2. 3대 디지털 자산, 각자의 역할

대한페이 생태계는 세 가지 디지털 자산을 축으로 작동한다.

- **대한페이(DHP)** 는 원화와 1:1로 페깅된 예금 증명 결제 수단이다. 1원이 1DHP다.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빠른 정산과 투명성을 더했다. 기존 암호화폐가 가진 극심한 변동성 없이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 **민국코인(MGC)** 은 총 발행량의 50%가 상생기금 보존 자원이다.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시장에서 자동으로 교환·매수 된다. 결제 볼륨이 늘수록 민국코인의 수요도 늘어나 희소성이 강화되는 구조다.
- **지역토큰(228종)** 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행된다. 서울 종로에서 결제하면 종로토큰, 부산 사상에서 결제하면 사상토큰이 쌓인다. 전국 228개 지역 각각에 독립적인 기본소득 재원이 형성되는 구조다. 기존 지역화폐가 정부 예산에 의존했다면, 지역토큰은 주민들의 소비 자체가 재원이 된다.

토큰명	영문	티커	역할
대한페이	DaehanPay	DHP	원화 1:1 페깅 기반 예금 증명 결제 수단
민국코인	MingukCoin	MGC	상생기금 보존 자산
지역토큰	228개 별도 표기	각각	전국 228개 권역별 발행, 지역민 기본소득 자원

↑

[전국 228개 시·군·구 지역토큰]

종로토큰, 송파토큰, 강남토큰, 구로토큰, 성동토큰, 사상토큰, 세종토큰, 과천토큰, 홍천토큰, 강릉토큰, 동해토큰, 영덕토큰, 고창토큰, 영광토큰, 제주토큰, 충주토큰, 나주토큰, 등 ~

"소비하면 재원이 생긴다. 예산도, 중세도 필요 없다."

2.3. 기존 지역화폐와 구조적 차이

구분	기존 지역화폐	지역토큰 시스템
재원 확보	정부 및 지자체 예산 투입	소비 기반 자동 생성
지속 가능성	예산 소진 시 중단 우려	소비 증가에 따른 무한 확장
가치 구조	단순 할인 (소멸성)	디지털 자산 연동 (가치 증폭)
운영 주체	행정 주도	시장 및 참여자 주도

2.4. 자생적 선순환 및 탄력적 자산 운용

소비가 발생할 때마다 민국코인과 지역토큰은 시장에서 자동으로 교환·매수되어 안정적인 재원이 축적된다. 이러한 일상적 소비는 민국코인과 지역토큰의 실질 수요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기본소득 재원 조성을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또한, 판매점은 기본 설정인 '대한페이 98% + 민국코인 1% + 지역토큰 1%' 구조를 기준으로 본인의 자산운용 전략에 따라 민국코인과 지역토큰의 입금 비율을 최대 98%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5. 민국코인 및 지역토큰 발행 동기와 가치 환원 철학

기존의 대다수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 미래에 특정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만으로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 상장에만 몰두해 왔다. 이러한 기존 구조에서는 거래소 상장과 투기적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프로젝트 개발팀과 소수의 초기 관계자들이 온전히 독식하는 반면, 늦게 진입한 일반 생태계 참여자들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 속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제로섬(Zero-Sum)'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대한페이 생태계의 '민국코인'과 '지역토큰'은 이러한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탄생했다.

두 토큰은 단순한 자금 조달이나 거래소 투기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다. 실생활 결제망인 대한페이에 직접 접목되어, 소비하고 결제하는 실제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내재 가치를 확보하는 '실물 경제 연동형 자산'이다. 따라서 토큰 발행과 가치 상승으로 인해 창출되는 막대한 수익과 부를 소수의 민간 재단이나 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한다. 그 대신, 창출된 모든 가치를 상생 재원(민국코인)과 전국 228 권역별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기본소득(지역토큰) 등으로 100% 환원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는다. 결과적으로 민국코인과 지역토큰의 발행 동기는 명확하다.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창출된 부가가치를 환원하는 '재분배 프로토콜'을 지향한다.

2.6. 지역토큰 기반 기본소득 모델

대한페이 생태계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자동으로 배분되는 지역토큰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해당 권역의 실물 경제 투자 재원으로 직접 연결된다. 전국 228개 시·군·구 권역별로 축적된 지역토큰 재원은 'AI 데이터 센터'와 '태양광 발전소'라는 두 가지 핵심 투자처 등에 배분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한다. 이 수익은 해당 지역민에게 월 기본소득으로 직접 지급되며, 별도의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자생적으로 작동하는 복지 모델을 실현한다.

아래는 지역토큰의 가치 성장에 따른 기본소득 재원 확보 시뮬레이션이다. 투자 대상은 AI 데이터 센터(70% 투자, 연 평균 수익률 약 13%)와 태양광 발전소(30% 투자, 연 평균 수익률 약 8%)로 구성된 예시이다.



※ 2025~2026 시장평균 기준, 장기 변동 가능

• **AI 데이터 센터**는 각 권역 내 유휴 부지에 고성능 서버를 구축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연산 자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글로벌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연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고수익 기반을 제공한다. AI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금융 투자를 넘어, 해당 지역에 첨단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시설 유지보수, 전력 공급 등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용 창출과 공공 인프라 확충이라는 부가적 가치를 창출한다.

• **태양광 발전소**는 공공 부지의 옥상이나 휴경지에 설치하여, 국가 전력 판매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와 SMP(계통한계가격) 기반의 전력 판매 수익은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여,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태양광 발전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투자로서, 지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므로 별도의 토지 매입 비용이 최소화되며, 장기 안정 수익이 보장된다.

• 지역민 1만명 기준, 1인 월 기본소득 예시

항목	누적 투자	AI 센터	태양광	합계	운영비	연간 순수익	월 기본소득
1단계	1,000억	91억	24억	115억	12억	103억	9만 원
2단계	5,000억	455억	120억	575억	58억	517억	43만 원
3단계	1조	910억	240억	1,150억	115억	1,035억	86만 원
4단계	2조	1,820억	480억	2,300억	230억	2,070억	173만 원
5단계	3조	2,730억	720억	3,450억	345억	3,105억	259만 원

※ 출처 : 삼일PwC·KB자산운용·한국에너지공단·Moody's 시장 평균값 (2025~2026)

(지자체 매칭펀드, 금융 레버리지(대출), RWA(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펀드 활용 투자 병행 가능)

3. 해결 방안 — 기술과 설계로 구조를 바꾸다

3.1. 결제 구조의 재설계 : 하이브리드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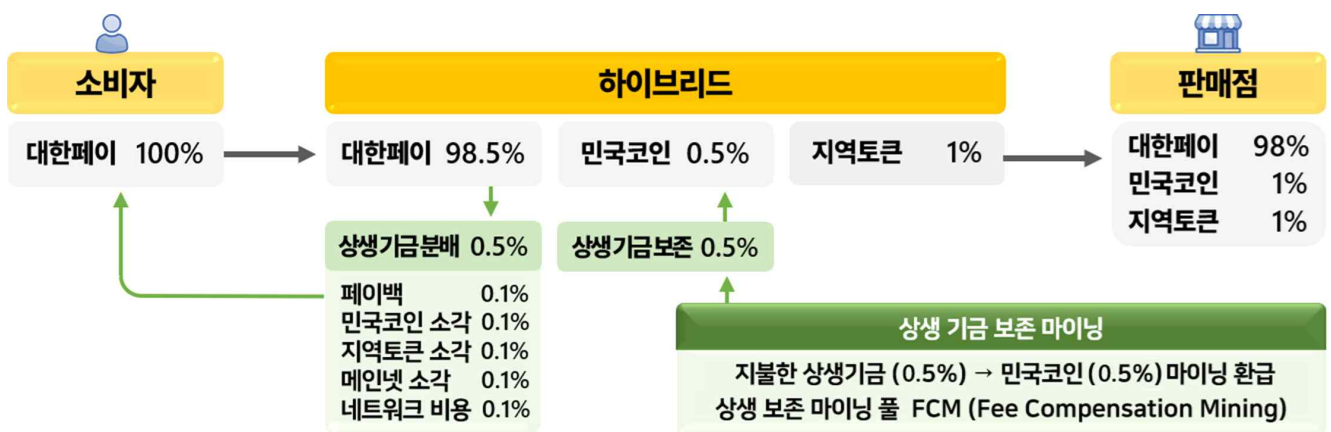
대한페이의 기술적 핵심은 원화기반 은행발행 예금토큰과 변동성 디지털 자산을 하나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결제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대한페이로 100원을 결제하면,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컨트랙

트가 1초 이내에 다음과 같이 자동 분배한다. 대한페이 98%가 판매점에 즉시 정산되고, 민국코인 1%, 지역토큰 1%를 실시간 매수 교환하여 입금 총 100% 가치를 수취한다.

3.2. 상생기금 메커니즘 : 주식의 자사주 소각 개념 도입

결제 금액의 0.5%는 상생기금으로 배분된다. 이 0.5%는 다섯 가지 용도로 정밀하게 쓰인다. 소비자페이백(0.1%)은 결제 즉시 소비자에게 대한페이로 지급된다. 민국코인 영구 소각(0.1%)은 시장에서 민국코인을 매수·소각하여 희소성을 높인다. 지역토큰 영구 소각(0.1%)은 지역 자산의 희소성을 확보한다. 메인넷코인 소각(0.1%)은 생태계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한다. 네트워크 수수료(0.1%)는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에 쓰인다. 토큰 소각은 주식 자사주 소각과 같은 개념이다.

FCM(Fee Compensation Mining)이 이 구조의 핵심이다. 상생기금으로 지불된 0.5%는 민국코인 0.5% 보존마이닝을 통해 판매점에 다시 환급된다. 판매점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진짜 0원이다.



• 상생기금 분배 로직 (0.5% 배분 상세)

항목	비율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① 소비자 페이백	0.1%	결제 즉시 소비자에게 대한페이 지급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참여 유도
② 민국코인 소각	0.1%	시장 매수 및 가치 소각을 통한 희소성 제고 효과 창출
③ 지역토큰 소각	0.1%	지자체별 토큰 소각으로 지역 자산의 희소성을 확보하고 가치 보존
④ 메인넷코인 소각	0.1%	인프라 거버넌스 토큰 소각을 통해 생태계 전체의 경제적 가치 제고
⑤ 네트워크 Fee	0.1%	안정적인 노드 운영 및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으로 지불

3.3 더블 리워드 시스템 : 결제 한 번에 3 가지 토큰으로 보상

판매점은 목적과 전략에 따라 세 가지 형태의 리워드를 자율적으로 비율(N%)을 설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소비자 토큰 리워드

판매점이 별도 비율(N%)을 설정하면 3종 토큰이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교환·매수되어 소비자 지갑으로 즉시 전송된다. 기본 설정은 기부(고향사랑기부제) 20%, 민국코인 10%, 지역토큰 10%, 특정 토큰 60% 비율로 분배되며, 비율은 아래 표에 배분 설정 같이 수정 적용할 수 있다

구분	배분 설정	주요 특징 및 용도
① 기부	20%~60%	소비자 명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30% 수령)
② 민국코인	10%~60%	상생기금 보존 자산 성격의 코인으로 실시간 교환·매수 입금
③ 지역토큰	10%~60%	판매점이 설정한 지역 맞춤형 토큰으로 실시간 교환·매수 입금
④ 특정토큰	60%~10%	판매점이 지정한 프로모션 토큰 (향후 STO·RWA 등) 교환·매수 입금

② 추천인 토큰 리워드

소비자 리워드와 같은 방식의 3종 토큰이 소비자 추천인에게 즉시 전송된다. 추천인은 직접 결제 없이도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며, 판매점은 구전 마케팅 효과와 신규 고객 유입을 동시에 달성한다.

구분	배분 설정	주요 특징 및 용도
① 기부	20%~60%	소비자 명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30% 수령)
② 민국코인	10%~60%	상생기금 보존 자산 성격의 코인으로 실시간 교환·매수 입금
③ 지역토큰	10%~60%	판매점이 설정한 지역 맞춤형 토큰으로 실시간 교환·매수 입금
④ 특정토큰	60%~10%	판매점이 지정한 프로모션 토큰 (향후 STO·RWA 등) 교환·매수 입금

3.4. 소비자 중심의 자동 기부 프로세스

판매점이 설정한 리워드 재원의 기본 20%가 적용되는 고향사랑기부는 결제한 소비자의 명의로, 소비자가 사전에 지정한 지자체에 자동 기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일상적인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워드로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하는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기부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자동 기부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답례품(기부금의 30%)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해당 지역에서 재소비하여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나아가 이렇게 모인 기부 재원은 열악한 지역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모델을 완성한다.

3.5. 규모 시뮬레이션 — 시장 점유율이 만드는 변화

연간 결제액 1,360조 원, 마케팅 리워드 5% 설정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이렇다.

시장 점유율 **3.8%** 달성 시, 주간 결제액 약 1조 원 기준으로 연간 고향사랑기부제 유입액이 **7,8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전국 기부 실적(1,515억 원)의 **5.15배**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간 2,340억 원이 지역 내에서 재소비된다.

항목	주간 규모	연간 규모	비고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50억 원	7,800억 원	전년 실적 1,515억 원의 5.15배
답례품 (지역사랑상품권)	45억 원	2,340억 원	기부액의 30% 환류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간편결제 로열티 프로그램 평균 적립률 3~7% 기준 중간값 적용)

시장 점유율 10% 달성 시에는 연간 고향사랑기부금이 2조 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배가 된다. 지역상품권 유통액은 6,12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항목	주간 규모	연간 규모	비고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약 392.3억 원	2조 400억 원	전년 실적 1,515억 원의 13배
답례품 (지역사랑상품권)	약 117.7억 원	6,120억 원	기부액의 30% 지역 소비

3.6. 선순환 구조의 완성

지역에서 소비하면 지역토권이 쌓인다. 지역토권은 AI 데이터센터와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된다. 그 수익이 지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을 받은 지역민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하면 더 많은 지역토권이 쌓인다. 더 높은 기본소득이 실현된다. 이 선순환이 지속되는 한 시스템은 자생적으로 성장한다.

4. 독창성 및 차별화 — 세상에 없던 혁신

4.1. 방향의 전환 — 지불을 순환으로

기존 결제 시스템은 수수료를 줄이거나 없애는 데 집중해 왔다. 대한페이는 수수료를 없애지 않는다. 그 돈의 방향을 바꾼다. 카드사의 수익이 되던 2%가 소비자·판매점·지역사회 모두에게 순환하는 자산이 된다. 기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실물 경제의 뒷받침 없이 청사진만으로 코인을 발행하여 거래소 상장에만 몰두해 왔다. 대한페이의 민국코인과 지역토권은 다르다. 실생활 결제망인 대한페이에 직접 접목되어, 소비하고 결제하는 실제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내재 가치를 확보하는 '실물 경제 연동형 자산'이다. 토큰 발행과 가치 상승으로 창출되는 수익을 소수가 독식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창출된 모든 가치를 상생 자원(민국코인)과 지역민 기본소득(지역토권)으로 100% 환원하는 '재분배 프로토콜'이다.

구분	비중	핵심 역할 및 기대 효과
사회 환원(기부)	20%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 소비자 세액공제 및 답례품 수령
가치 보존(민국)	10%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공유 자산 적립
지역 선순환(토큰)	10%	28개 지자체별 기본소득 자원 및 지역 소비 촉진
전략 자산(특정)	60%	STO / RWA 등 고부가가치 자산 연동 및 마케팅 활용

4.2. 자생성 — 예산 없이 무한 확장

기존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대한페이의 지역토권은 소비 자체가 자원이다. 소비가 일어나는 한 자원은 자동으로 생성되고, 소비가 늘수록 자원도 무한히 확장된다. 판매점 점유율이 3.8%만 되어도 연간 7,800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전국 지자체에 분배된다. 이는 2025년 실적(1,515억 원)의 5.15배다. 점유율 10% 달성 시에는 연간 2조 400억 원이 지자체에 유입된다. 증세도 국채도 필요 없다. 이미 매일 흘러가고 있는 돈의 경로만 바꾸는 것이다.

비교 항목	카드사/PG사	기존 지역화폐	USDT·USDC	대한페이
결제 수수료	약 2% 지불	0% (세금 보존)	낮음·해외 종속	0% + 자산 전환
재원 지속성	영구 지불	예산 의존	없음	소비 기반 자동 생성
지역 기본소득	없음	간접적	없음	직접 지급 가능

4.3. AI의 역설적 해법

AI가 일자리를 빼앗아 갈수록 데이터센터 수요는 폭발적으로 커진다. 대한페이는 바로 그 데이터센터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 AI가 회계 업무를 처리할수록 데이터센터 수요는 늘어나고, 자율주행 트럭이 도로를 달릴수록 물류 효율은 높아지며, 휴머노이드가 공장을 채울수록 기업 이익은 증가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국민이 소비하는 한, 대한페이는 기본소득 재원을 쌓아간다. 기술이 빼앗아 간 몫을 같은 기술의 수익으로 되돌리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논리적으로 깔끔한 구조다.

5. 기대 효과 — 소비가 기본소득이 되는 시대

5.1. 소비자

판매점의 리워드 설정에 따라 결제 즉시 디지털 자산 3종을 지급에 적립받고, 고향사랑기부제 자동 참여로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5.2. 판매점(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리워드 설정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단골 확보가 자동화 되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얻는다. 수수료 제로에 마케팅 비용까지 절감되는 이중 혜택이다.

5.3. 지자체 228곳

별도 예산 투입이나 홍보비 없이 소비자 명의의 기부금이 자동으로 유입된다. 기부액의 30%가 지역 사랑상품권으로 환원·소비되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을 직접 견인한다. 지역토권을 통해 별도 세출 없이 지역민 기본소득 재원이 자동으로 형성된다.

6. 금융 혁신 및 제도권 안착 전략

6.1.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추진

원화기반 은행발행 예금토큰의 법적 지위는 아직 불명확하다. 대한페이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추진하여 법적 특례를 인정받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이전 단계에서는 '예금 증명 토큰(은행 발행)' 방식으로 선행 대응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상에 모든 내역을 기록하여 상시 감사 가능한 구조를 유지한다. 강화된 KYC·AML·FDS 시스템으로 금융 사고와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6.2.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 (KYC)

- **신원 확인** : 결제 또는 리워드 수령 시 강화된 KYC 절차를 적용하여 금융 사고를 방지한다.
- **이상거래 탐지** : FDS(Fraud Detection System)를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나 조작 시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한다.

7. 글로벌 서비스 확장 계획

7.1. 비공식 무역 대금의 현황 및 비중

- **스테이블코인 활용 비중** : 글로벌 무역 및 비공식 거래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무역 거래 중 약 10%가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자산 유출 규모** : 지난 한 해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국외로 빠져나간 자산은 약 **1,6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한국 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7.2. 비용 및 네트워크 수수료 발생

가상자산 기반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도 막대하다.

- **수수료 지출** : 작년 한 해 동안 바이낸스(Binance)와 같은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하며 지출된 수수료만 해도 약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 **통화 교환의 한계** : 원화는 국제 사회에서 비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와의 직접 교환 및 글로벌 통용성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비공식 거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7.3. 대한페이의 글로벌 혁신 모델 : '상생'과 '자산화'

대한페이는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수수료 자산화를 세계 전역으로 확장할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단순한 결제 수단의 양적 확장을 넘어, 전 세계의 모든 소비 활동이 다시 지역사회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의 공익적 공유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다. 각 국가별로 발행되는 '로컬토큰'은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재원이 되어, 지구촌 곳곳을 하나의 디지털 공유 경제권으로 연결할 것이다. 대한페이는 이러한 혁신적 구조를 선도함으로써, 원화기반 은행발행 예금토큰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축 프로토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 **수수료의 자산화** : 단순히 소모되어 지불되던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 및 판매점의 실질적인 자산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통해,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지출이 곧 저축'이 되는 새로운 경제적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이는 고착화된 금융 비용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재정의하여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려주는 혁신이다.

• **글로벌 상생 플랫폼** : 전 세계 사용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자국 화폐의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축 통화 의존도를 낮추는 상생 생태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한페이는 고성능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빠른 결제 확정 속도와 최소화된 네트워크 가스비, 모든 형태의 스마트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실물 결제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 **K-금융의 비전** : 전 세계를 열광시킨 K-팝과 K-콘텐츠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금융 산업으로 전이시켜, 'K-금융(K-Finance)'의 글로벌 선구자로 거듭나고자 한다. 글로벌 팬덤이 K-컬처를 향유하는 일상 속에 대한페이의 상생 알고리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함으로써, 한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이 글로벌 표준 결제 프로토콜로 자리 잡는 '디지털 금융 영토 확장'을 실현할 것이다.

8. 결론 — 상생과 혁신이 공존하는, 소비가 기본소득이 되는 시대

결제는 이미 매일 일어나고 있다. 대한페이가 제안하는 건 그 결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뿐이다.

문제는 증명됐다. 매년 약 30조 원이 지불되는 구조적 문제는 데이터로 검증된 팩트다.

기술은 완성 단계이다. 독자 블록체인 메인넷, VRF 추첨, 스마트컨트랙트 — 이미 완성 단계이다.

타이밍이 맞다. AI 일자리 대체, 기본소득 수요 급증,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

구조가 지속 가능하다. 소비가 일어나는 한 재원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자생적 순환 구조다.

아침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자산을 쌓는다.

점심에 식당에서 결제하는 순간, 당신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는 순간, 당신은 사회를 위한 기부에 참여한다.

이제 결제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산이고, 기회이며, 공동체를 향한 희망이다.

누군가의 이득이 타인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모든 참여자가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나누는

'포지티브섬'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경제 모델이다.

대한페이는 소수가 독식하는 기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모든 참여자가 함께 번영하는 경제로의 거대한 전환을 꿈꾼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로 금융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채우고자 한다.

우리에게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이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 상생의 구조가 작동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결제는 단순한 비용을 넘어, 사회를 향한 위대한 투자가 됩니다.

"세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다. 이미 흘러가는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9. 면책 조항

본 백서에 기재된 내용은 대한페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술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서비스 구현 결과는 정부 정책 및 규제 승인, 파트너십 구축 현황,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문서에 포함된 모든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특정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된 기대 수치이며, 실제 결과는 서비스 이용 규모와 정책 환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대한페이는 대한민국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사행성을 배제한 투명하고 건전한 대한페이 프로토콜 모델을 지향한다.

인포그래픽 목차

PART II. 시각 자료 (Infographics)

인포그래픽 표지 · “대한페이 — 기본소득 실현 프로젝트”	16
인포그래픽 ① 왜, 지금 ‘기본소득’ 인가	17
인포그래픽 ② 소멸되는 ‘결제 수수료’ 비용	17
인포그래픽 ③ 소멸되는 비용을 ‘자산 보존’ 으로 전환	18
인포그래픽 ④ 대한페이 3대 요소	18
인포그래픽 ⑤ ‘지역토큰’ 메커니즘	19
인포그래픽 ⑥ ‘지역토큰’ 기반 기본소득 모델	19
인포그래픽 ⑦ ‘하이브리드 결제’ 서비스	20
인포그래픽 ⑧ ‘상생기금’ 보존 메커니즘	20
인포그래픽 ⑨ 생태계 참여자 모두의 ‘경제적 이익’	21
인포그래픽 ⑩ 경쟁환경 & 참여자 포지셔닝	21



예산 없이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 프로젝트

대한페이

왜, 지금 '기본소득' 인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 소득 안전망은 지금 필요합니다 → AI 일자리 대체는 이제 시작에 불과

화이트칼라

회계·세무·행정

30% 사무직 감소 (2030)

회계, 세무 보조, 고객 응대, 문서 검토, 데이터입력 등 지식 기반 사무직도 AI 자동화 영향권에 진입

자율주행

운전 자동화

200만 운전직 위기인원

택시·버스·화물 운전 등 이동 노동은 효율이 높아 질수록 기존 운전자 일자리는 축소 압력에 직면

휴모노이드

제조업 자동화

제조업 현장 40% 로봇 전환

제조·물류·창고 현장의 반복 업무를 로봇이 대체 하며 생산 현장의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

새로운 분배 모델의 현실적 장벽

- ✓ UBS (Universal Basic Services) : 의식주, AI 사용권 등 필수 서비스 직접 제공.
 - ✓ GPU 소유권 분배 : 샘 올트먼 제안, 연산 자원을 토큰 형태로 배분.
 - ✓ UBE (Universal Basic Equity) : 성인기 진입 시 주식 등 자산 증여.
- 결정적 한계 : "재원이 없다" : 증세 없이는 연간 수백조 원의 예산 확보 불가능.

AI 대량 실직 → 소비 위축 → 2028년경 금융위기 수준 충격 경고. 기존 분배 방식(UBS·GPU 배분·UBE)은 공통 한계 : "재원이 없다."

소멸되는 '결제 수수료' 비용



카드 및 간편결제 기반 결제 구조는 소비자 → 결제사업자 → 판매점으로 이어지는 중개 구조를 중심으로 작동



대한민국 국내 연간 결제 수수료 규모

연간

약 30조 원

전체 결제액 약 1,360조 원 중 약 2.2%

매년 소멸

글로벌 전 세계 연간 결제 수수료 규모

연간

약 1,819조 원

전체 결제액 약 52조 달러 중 약 2.4%

매년 소멸

‘대한페이는 이 수수료를 생태계 참여자에게 환원하여 소멸이 아닌 가치 순환으로 전환’

소멸되는 비용을 '자산 보존' 으로 전환



소멸되던 수수료 2%를 디지털자산으로 전환 → 소비자·판매점·지역사회·국가 모두에게 순환



지역 토큰 : 지역민 기본 소득 자원

‘대한페이’ 3대 요소



일상의 결제가 특별한 보상으로, 상생을 더한 차세대 토큰 이코노미



기존 지역화폐 vs 지역토큰 시스템 비교		
구분	기존 지역화폐	지역토큰 시스템
자원 확보	정부 및 지자체 예산 투입	소비 기반 자동 생성
지속 가능성	예산 소진 시 중단 우려	소비 증가에 따른 무한 확장
운영 주체	행정 주도	시장 및 참여자 주도

지역토큰 재원으로 AI 데이터센터·태양광 투자 → 기본소득

‘지역토큰’ 메커니즘



전국 228개 권역별 공공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방토큰 메커니즘



기본 소득 재원 자동 확보

결제로 인한 지역토큰 자동
교환·매수로 기본소득 재원 축적

토큰 가치 지속성

지속적인 교환·매수는
지역토큰의 가치 형성

예산 없는 복지 실현

확보된 재원으로 지역민의
기본소득 및 무상복지 확대

‘지역토큰’ 기반 기본 소득 모델



228개 권역별(시·군·구) 공공재원 확보로 AI 데이터센터 & 태양광 투자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를 실현

AI 데이터 센터 (70% 투자)

- 지역 내 유휴 부지 고성능 GPU 서버 구축
기업 대상 클라우드 대역 연산 수익
- 지역 고용창출·공공인프라 효과

연 평균: 약 13%

태양광 발전소 (30% 투자)

- 공공 부지 옥상·휴지 설치
REC/SMP 국가 전력 판매 현금 흐름
- 공공 부지 활용·ESG 부합

연 평균: 약 8%



지역민 1만명 기준: 1인 월 기본소득 예시

항목	누적 투자	AI 센터	태양광	합계	운영비	연간 순이익	월 기본소득
1단계	1,000억	91억	24억	115억	12억	103억	월 약 9만 원
2단계	5,000억	455억	120억	575억	58억	517억	월 약 43만 원
3단계	1조	910억	240억	1,150억	115억	1,035억	월 약 86만 원
4단계	2조	1,820억	480억	2,300억	230억	2,070억	월 약 173만 원
5단계	3조	2,730억	720억	3,450억	345억	3,105억	월 약 259만 원

※ 수식: (투자 재원 × 70% × 13%) + (투자 재원 × 30% × 8%) = 합계 → 합계 × 10% 운영비 차감 → 순이익

※ 출처: 삼일PwC·KB자산운용·한국에너지공단·Moody's 시장 평균값 (2025~2026)

지자체 매칭펀드, 금융 레버리지(대출), RWA(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펀드 활용 투자 병행 가능

‘하이브리드 결제’ 서비스



사라지는 결제수수료를 하이브리드 결제 (스테이블코인과 변동성코인을 하나로 합쳐 입금 받는 서비스)로 전환 프로토콜



‘상생기금’ 보존 메커니즘



상생기금 보존 마이닝 : FCM (Fee Compensation Mining) 지불한 상생기금만큼 민국코인으로 즉시 환급



유통량 영구적 감소
소각된 코인 영구 삭제, 희소성 지속적 증가

주식 자사주 소각 개념
상법개정안 기준, 주식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생태계 참여자 모두의 '경제적 이익' (ROI)



수수료 재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증폭시키고, 대한페이 생태계 참여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독창적 프로토콜

소비자	판매점	추천인	기초 지자체
 - 리워드 토큰 획득 - 지역 발전 참여 토큰 리워드 획득	 - 수수료 제로 보존 혜택 - 리워드로 고객 유치 수수료를 리워드로	 - 레퍼럴 리워드 획득 - 추천을 통한 추가 이익 추천 인센티브 수익	 - 자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지역민 기본소득 지급

"수수료 소멸을 자산으로 전환하여, 선순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추가 재정 부담 없이 지역 환원 구조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된다."

경쟁 환경 & 차별화 포지셔닝



기존 결제 시스템과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살린다

비교 항목	카드사/PG사	기존 지역화폐	USDT·USDC	대한페이
결제 수수료	약 2% 소멸	0% (세금 보전)	낮음·해외 증속	0% + 자산 전환
재원 지속성	영구 소멸	예산 의존	없음	소비 기반 자동 생성
지역 기본소득	없음	간접적	없음	직접 지급 가능
원화 연동	원화	원화	달러 연동	1:1 원화 페그
특허 보호	별도	없음	없음	등록 준비중
운영 거버넌스	중앙집중	행정 주도	해외 법인	지자체·시장 공동

★ 대한페이의 차별점 | 하이브리드 결제 · 트리플 리워드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소득 지급

백서 요약 목차

PART III. 백서 요약 (Executive Summary)

요약 1. 프로젝트 개요	23
1.1. 문제 인식	23
1.2. 핵심 목표	23
요약 2. 결제 구조 비교 및 디지털자산 체계	24
2.1. 기존 vs 대한페이 결제 구조	24
2.2. 3대 디지털 자산 구조 (예금토큰 + 듀얼 토큰)	24
2.3. 기존 지역화폐 vs 지역토큰	24
2.4. 지역토큰 기반 기본소득 모델 (예시)	24
요약 3. 상생기금 메커니즘	25
3.1. 상생기금 분배 로직 (0.5%) — 자사주 소각 개념 도입	25
요약 4. 더블 리워드 시스템	25
4.1. 소비자 토큰 리워드	25
4.2. 추천인 토큰 리워드	25
요약 5. 참여자별 기대 효과	26
요약 6. 규모 시뮬레이션	26
6.1. 시장 점유율 3.8% 기준	26
6.2. 시장 점유율 10% 기준	26
종합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6

Executive Summary (백서 요약)

(본 요약은 주요 내용을 발췌·재구성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본문을 참조)

1. 프로젝트 개요

1.1. 문제 인식

1)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 일자리 대체

AI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업무를 직접 대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상용화 시점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진 2027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화이트칼라의 지식 노동부터 운송업의 자율주행, 제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일자리 대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결실이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으면서, 생산성은 증대되나 소비는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2028년경 금융위기 수준의 심각한 경제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이어진다.

구분	일자리 대체
사무·행정직 자동화 전망 (맥킨지, 2030)	전 세계 사무직 최대 30%
국내 운전직 종사자	약 200만 명 (자율주행 상용화 직격)
제조업 반복직 로봇 전환 (2030 전망)	단순·반복 직무 대다수

2) 또 하나의 문제 — 매년 약 30조 원이 지불된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약 30조 원 (전체 결제액 1,360조 원) 규모의 카드·PG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을 잠식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며, 기존 금융 리워드 체계 역시 소비자·지역사회·국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상생 모델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구분	연간 수수료	전체 결제액 대비
대한민국	약 30조 원	약 2.2%
글로벌	약 1,819조 원 (\$1.25T)	약 2.4%

1.2. 핵심 목표

기존 결제 구조에서 지불되던 수수료 약 2%를 공익형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여, 소비자·판매점·지역사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상생 보상 모델을 구현한다.

2. 결제 구조 비교 및 디지털자산 체계

2.1. 기존 vs 대한페이 결제 구조

구분	기존 결제	대한페이 결제
소비자 결제	100%	100%
금융 수수료	-2% (지불)	0% (지불 없음)
판매점 정산	98%	100% = 대한페이 98% + 민국코인 1% + 지역토큰 1%

2.2. 3대 디지털 자산 구조 (원화기반 은행발행 예금토큰 + 듀얼 토큰)

자산명	관리 주체	역할
대한페이	DHP	원화 1 : 1 페깅, 은행발행 예금토큰, 결제 수단
민국코인	MGC	상생기금 보존 자산
지역토큰	전국 228개 시·군·구	전국 228개 시·군·구 발행, 지역민 기본소득 재원

2.3. 기존 지역화폐 vs 지역토큰

구분	기존 지역화폐	지역토큰
재원 확보	정부 · 지자체 예산 투입	소비 기반 자동 생성
지속 가능성	예산 소진 시 중단 우려	소비 증가에 따른 무한 확장
가치 구조	단순 할인 (소멸성)	디지털 자산 연동 (가치 증폭)
운영 주체	행정 주도	시장 및 참여자 주도

2.4. 지역토큰 기반 기본소득 모델 (예시)

228개 권역별(시·군·구) 지역토큰을 통한 공공재원 확보로 AI 데이터센터 & 태양광 등에 투자한 수익은 지속 가능한 지역민 기본소득을 실현한다. (투자처 변경 가능)

• 지역민 1만명 기준, 1인 월 기본 소득 예시

항목	누적 투자	AI 센터	태양광	합계	운영비	연간 순수익	월 기본소득
1단계	1,000억	91억	24억	115억	12억	103억	9만 원
2단계	5,000억	455억	120억	575억	58억	517억	43만 원
3단계	1조	910억	240억	1,150억	115억	1,035억	86만 원
4단계	2조	1,820억	480억	2,300억	230억	2,070억	173만 원
5단계	3조	2,730억	720억	3,450억	345억	3,105억	259만 원

3. 상생기금 메커니즘

3.1. 상생기금 분배 로직 (0.5%) : 주식에서 자사주 소각 개념 도입

항목	비율	내용
페이백	0.1%	결제 즉시 소비자에게 대한페이 지급
민국코인 영구 소각	0.1%	시장 교환 · 매수 및 소각 → 희소성 제고
지역토큰 영구 소각	0.1%	지역 자산 희소성 확보 및 가치 보존
메인넷코인 영구 소각	0.1%	생태계 전체 경제적 가치 제고
네트워크 수수료	0.1%	블록체인 시스템 유지 최소 비용

FCM (Fee Compensation Mining) : 상생기금으로 지불된 0.5%는 민국코인 0.5% 보존 마이닝을 통해 판매점에 환급되므로 실질 비용은 0% 제로이다.

4. 더블 리워드 시스템

4.1. 소비자 토큰 리워드

판매점이 별도 비율(N%)을 설정하면 기부 외에 3종 토큰이 실시간 교환 · 매수되어 소비자 지갑으로 즉시 전송된다. 소비자는 디지털자산을 리워드로 받는다.

자산명	비율	내용
기부	20% ~	소비자 명의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답례품 30% 받음)
민국코인	10% ~	상생기금 보존 자산
지역토큰	10% ~	전국 228개 권역별 지역민 기본소득 재원
특정토큰	~ 60%	자율 지정 프로모션 토큰 (향후, STO · RWA 토큰 등 포함)

4.2. 추천인 토큰 리워드

판매점이 별도 비율(N%)을 설정하면 소비자 리워드와 같은 방식으로 추천인에게 즉시 전송된다. 추천인은 직접 결제 없이도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며, 판매점은 마케팅 효과를 달성한다.

자산명	비율	내용
기부	20% ~	소비자 명의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답례품 30% 수령)
민국코인	10% ~	상생기금 보존 자산
지역토큰	10% ~	전국 228개 권역별 지역민 기본소득 재원
특정토큰	~ 60%	자율 지정 프로모션 토큰 (향후, STO · RWA 토큰 등 포함)

5. 참여자별 기대 효과

참여자	핵심 혜택
소비자	결제 즉시 디지털 자산 적립 +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액 30%) 수령
판매점	수수료 0원 + 더블 리워드 자율 설정 → 신규 고객 유입 및 매출 증대
전국 228개 지자체	별도 예산 없이 기부금 자동 유입 → 지역 재정 확충 + 골목상권 활성화
	별도 세출 없이 지역토큰 형성 → 지역민 기본소득 재원 확보
국가	예산 투입 없음

6. 규모 시뮬레이션

연간 결제액 1,360조 원 예시 (마케팅 리워드 5% 설정 예시)

6.1. 시장 점유율 3.8% 기준

항목	주간 규모	연간 규모	비교 수준
지자체(고향사랑기부제) 유입	약 150억 원	7,800억 원	2025년 실적 1,515억의 약 5.15배 ↑
답례품(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약 45억 원	2,340억 원	기부액의 30% 지역 재소비

※ 출처 : 행안부, [고향사랑이음\(ilovegohyang.go.kr\)](http://ilovegohyang.go.kr) 2025년도 고향사랑 기부금 총 기부액 1,515억 원

6.2. 시장 점유율 10% 기준

항목	주간 규모	연간 규모	비교 수준
지자체(고향사랑기부제) 유입	약 392억 원	약 2조 400억 원	전년 대비 약 13배 ↑
답례품(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약 118억 원	약 6,120억 원	기부액의 30% 지역 재소비

. 종합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대한페이는 국가 예산 추가 투입 없이, 국민의 일상적 소비를 기반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지역 상생·소상공인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는 공익형 결제 프로토콜이다. 신규 예산 없이 민간 소비를 공공 재원으로 전환하며, 전국 228개 권역별 맞춤형 기본소득과 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이 자동으로 형성된다. 결제는 이미 매일 일어나고 있다. 대한페이가 제안하는 건 그 결제의 구조를 바꾸는 것뿐이다.

"세금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다. 이미 흘러가는 돈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